



도내 경찰들, 현충일 추념식 행사 거행

무주경찰서(서장 박종삼)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4일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 적상산 경찰 충령비에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서장을 비롯한 과·계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화 분향과 호국영령들에 대한 경례, 묵념을 올리는 순으로 진행했다. 박종삼 서장은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경찰과 군인을 포함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무주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경찰서(서장 임종명)는 4일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김제 순동 소재 군경묘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는 경찰서장 및 과장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현화 및 분향, 호국영령과 순국경찰관에 대한 묵념, 정물경찰 묘역순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임종명 서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고귀한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김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진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차량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차량화재 주의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소화기를 1대이상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짧은 시간내에 차량 전체가 연소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 또는 변형이 잘 생기지 않아 차량 내 보관이 용이하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용'이란 표시가 있다. 관련 규칙에 따라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며, 5월부터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설치해야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감지기 오작동 대체 교육 실시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최근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는 화재 감지기 오작동에 대한 대처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5년간 화재감지기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 현황을 보면 2016년 196건에서 2019년 616건으로 4년 사이 3배나 증가했으며, 이에 남원소방서 시점 119안전센터는 4월 주간 근무자 중 구급 대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에 대해 소방시설 관리자 유자격자를 통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오작동 사례별 대응 ▲감지기 전기점검 ▲감지기 재설치 방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번기 '운동실천 챌린지'로 건강지켜요

완주군, 코로나19로 체조교실 중단에 따라 어르신들께 틈틈이 운동 독려

완주군이 농번기를 맞아 '일상생활 속 틈틈이 운동실천하기' 챌린지를 시작해 주목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이 폐쇄되고, 체조교실 역시 전면 중단된 상황에 갑작스럽게 농번기 노동에 입할 경우 부상 위험이 가능성이 크다. 이에 완주군이 '농번기 백세건강' 프로그램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 틈틈이 운동실천하기' 챌린지를 고안한 것이다. 완주군 보건소는 농번기 백세건강 체조교실 대상이었던, 읍면 32개소 경로당의 어르신 487명에게 챌린지 세트를 배부하고, 어르신들이 농번기 노동 전후,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운동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권역별 보건사업팀 직원이 개별 리더자(마을 대표자)를 선출해 리더자에게 챌린지 내용을 교육하면, 리더자는 경로당 이용자 중 1명 이상에게 전달하고, 전



달 받은 주민은 다른 1명에게 또 다시 전달해 지역 주민 전체가 챌린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챌린지 내용은 첫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기 둘째, 일상생활 속 틈틈이 스트레칭하기 셋째, 리플릿 참고해 근력운동하기 이 세 가지 내용을 실천하면 된다.

챌린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챌린지 세트가 함께 배부되며, 세트에는 스트레칭 밴드 외에 마스크, 손수건,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주는 리플릿이 담겨 있다.

최순례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속적인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 어르신들의 백세건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챌린지 참여와 건강생활 실천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쌍치면 백은장학회, 대학신입생 장학금 전달

순창군 쌍치면 백은장학회(이사장 설동일)는 지난 3일 쌍치면 이장회의에서 관내 초·중학교 출신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6명에게 총 1,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백은장학회는 2016년 쌍치면 출신 김상열(85세, 서울 거주) 회장이 기탁한 2억여 원을 기반으로 설립된 장학회다. 지난 2017년부터 동향 후배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쌍치면 출신 대학신입생 3명에게 300만원씩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 19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신청자 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경찰, 절주교육·가상음주체험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춘향골체육공원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절주교육 및 고교를 활용한 가상음주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한용수 청문감사관이 체력검증과 병행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 및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을 예방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올바른 음주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해 고교를 활용한 가상음주체험 및 금연교육, 음주 자기검진, 우울증 검사 등 다양한 맞춤형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치면, 코로나19 인력난 호소 농가 일손 돕기

임실군 덕치면에서는 본격 영농철에 접어들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촌 인력난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었다. 지난 3일 군청 청소위생과, 면사무소 직원 20여명은 덕치면 가곡리 고추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직원들은 본연의 바쁜 업무를 잠시 접고 지원농가의 2,300㎡ 면적의 고추밭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농가를 도왔다. 고추 순따기, 고추줄 묶기 작업 등으로 구슬땀을 흘렸으며, 농작업 지연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농가의 걱정을 덜어 주었다. /임실=진충영 기자

결론

▲김승규(36사단 근무, 고 김형철·김성씨) 장남)·신혜린(장수군청 근무, 신성용 일요신문 전북본부장·김애란 씨 장녀)양= 일시: 6월 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3층 세인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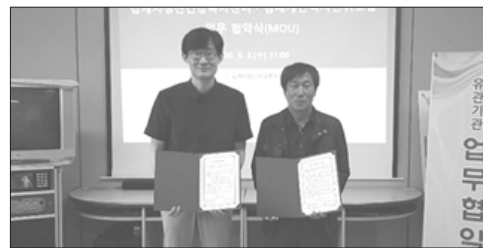
김제시보건소-김제시 개인택시조합, 자살예방 사업 업무협약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3일 개인택시단위조합(조합장 김형국)과 김제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생명사랑 인식개선 및 자살 고위험군 연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시 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기사 20명을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교육을 통해 생명지킴이 생명사랑 택시 운영 등 자살예방 사업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생명사랑 택시는 생명지킴이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자살위험 징후를 보이는 승객을 조기 발견하여 정신건강 상담 정보를 안내하고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게 된다.

또한 생명사랑 택시로 지정된 차량은 보조석 헤드 뒷편에 생명사랑 문구 및 정신건강상담전화 번호가 인쇄된 생명사랑 손잡이를 설치하여 자살위험군의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자살예방 홍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여성옥)는 "생명사랑 택시는 손님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전하여 살아갈 힘을 나눠 주는 행복 전파자로 지역사회 생명사랑실현 분위기 확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병원,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 1등급' 획득

익산병원(병원장 신상훈)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폐쇄성폐질환 제5차 적정성평가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획득함으로써 3년 연속 우수병원으로 선정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이나 대기오염 등으로 발생하는 만성폐질환으로, 점차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를 특징으로 한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만40세 이상 환자에게 치료를 실시한 6,39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폐 기능 검사 시행률 △흡입기관지

확장제 처방환자 비율 △지속 방문 환자 비율 등으로 익산병원은 종합점수 89점을 획득해 전체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해 치료의 질을 입증했다.

익산병원 호흡기내과 최인선 과장은 "내과 진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폐질환에 대해 적정성평가 1등급을 받은 것은 높은 질적 수준을 인정받은 결과로 코로나19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호흡기질환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 환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림 기자

Advertisement for energy-saving methods. Title: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Cooling the Earth with Energy Saving Practices). It lists four methods: 1. Turn off power products when not in use. 2. Turn off lights when not needed. 3. Keep indoor temperature at 20 degrees and close windows. 4. Reduce electricity usage during peak hours. Includes an illustration of hands holding a globe and a photo of a green landscape.